템플스테이 홍보 진력…'K-불교' 세계 알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명 스님 신년기자간담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 대표 전통문화관광콘텐츠인 템플스테이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문화교류행사들이 펼쳐진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명 스님은 2월 1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한 해 사업기조와 계획들을 소개했다.

원명 스님은 '치유를 통한 국민행복과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비전으로 세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 과제로는 △참가자 유치 회복을 위한 홍보마케팅 △명상·치유·전통문화 테마 프로그램 개발 △사찰 주도형 사회공익 템플스테이 강화 △사찰·지역·기관 협력 및 참여 확대 △정책 개발 질적 전환을 제시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방문의 해'로 외국인들의 한국 관광 증가가 기대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으로 외국인 템플스테이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을 세웠다.

다양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활용한 문화교류 행사로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 문화를 전하고 이를 통해 템플스테이 참가를 유도하겠다는 게 원명 스님의 계획이다.

당장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인도 현지에서 열린다. 일정 중에는 주인도 한국대사관과 공동주관으로 인도 정관계·문화예술·외교 인사를 초청해 사찰음식 만찬 행사를 진행하며, 뉴델리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연등회·템플스테이 사진전 및 문화체험 행사가 열린다. 또한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회향지인 쉬라바스티 기원정사에서 수행자의 전통식사법인 법공양(발우공양) 시연도 이뤄진다.

국내에서는 오는 8월 새만금 일원에서 열리는 2023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에서 전 세계 5만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사찰음식 홍보부스 및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식 영외활동으로 템플스테이 체험프로그램을 전북 8개 사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원명 스님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외국인의 한국방문 회복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템플스테이 참가자 유치 회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템플스테이 전용 명상,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 투자도 본격화된다. 원명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국내외 사람들에게 바쁜 일상을 벗어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비우는 시간을 선물해왔다"면서 "지혜와 자비를 기르는 명상·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해 템플스테이 참가자 개개인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사찰 현장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명 스님이 2월1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印 현지서 전시, 사찰음식 시연 등
3월 韓-印 수교 50주년 행사 추진
세계잼버리대회 연계 마케팅 진행

명상, 상담프로그램·순례길 개발
템플스테이 발전 위한 연구사업도
"국민 행복 위한 문화사업 펼칠 것"

경주 남산 순례길 등 사찰과 지역 불교계가 유지·보존하고 있는 고유 순례길을 발굴하고 지역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테마형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된다. 원명 스님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전통건축 등 테마형 코스를 개발하려 한다. 이를 위해 오는 8월경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프로그램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템플스테이 등 불교문화사업 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기구 구성도 추진된다. 원명 스님은 "불교문화사업의 협력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템플스테이 운영사찰과 관광업계·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확대할 것"이라며 "정책 기획,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등 분야별 전문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코로나19로 제한 운영했던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간담회'를 활성화해 긴밀한 협력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사업들도 눈길을 끈다. 문화사업단은 동국대일산병원과 함께 '템플스테이가 면역력 증진 및 치유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연구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사찰의 후원(공양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수행자의 일상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조명도 이뤄진다.

원명 스님은 "문화사업단은 지난 템플스테이 20년을 디딤돌 삼아, 21살 청년의 기개로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고 국민행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문화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불교 싱크탱크 동국대 명상프로그램 개발하자"

진우스님, 동국대 신년하례서 제안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종단 표준 명상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할 것을 동국대에 제안했다.

진우 스님은 1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학교법인 동국대 임직원들과의 신년하례 자리에서 "종단 표준 명상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한다.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동국대에서 종단과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성우 스님은 "동국대 발전이 곧 불교 발전이라는 생각을 갖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동국대가 글로벌 명문사학으로 발전할 수 있게 종단적 원력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신년하례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상임이사 성월 스님,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총무부장 호산 스님을 비롯해 윤성이 동국대 총장과 오는 3월부터 임기에 들어가는 윤재웅 차기 총장 등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포교원·상월결사, 미래 포교 힘모은다

'대학생 전법포교' 업무협약 체결
대불련, 교불련, 전법단 3축으로
10년 계획 설립, 재정 지원 박차

대학생 전법 포교를 위해 사단법인 상월결사(이사장 자승)와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이 힘을 모은다. 사단법인 출범과 함께 미래세대 포교에 기치를 건 상월결사 측의 요청에 따라 청년대학생 포교활성화에 종단 안팎의 역량을 모은다는 취지다.

상월결사와 조계종 포교원은 2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대불련을 비롯한 다양한 불교계 대학생 단체 지원 강화 및 장학, 후원사업을 전개한다.

상월결사는 이번 협약 전 사단법인 출범과 함께 첫 번째 주력활동으로 대학생 포교를 내건 바 있다.



상월결사 상임이사 원명 스님과 조계종 포교부장 선업 스님이 업무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이날 (사)상월결사 상임이사 원명 스님(봉은사 주지)은 "대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이들로 포교의 집중 대상"이라며 "이들이 불자로 커나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포교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포교부장 선업 스님은 "단순히 1,2년에 그치는 사업이 아닌 1차 10년 계획을 세워 포교활성화를 이끌어 갈 것"이라며 "1사찰 1학교 결연과 함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교수불자연합회, 대학생 청년전법단 등을 3개 축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네트워크를 갖추겠다. 상월결사와 포교원이 전폭적으로 재정지원을 해나갈 것이다. 전국단위로 뿌리내려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과 함께 조계종 포교원은 같은날 대한불교청년회 신임 집행부와 대학생불교연합회 신임 집행부 예방에서 새해 계획 등을 듣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종교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청년포교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스님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불교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과거 활동한 청년불자까지도 세세하게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 사람들을 위해 더욱 나서달라. 인연의 소중함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예방 자리에서 장정화 32대 대불청 회장은 "미얀마 교환학생 한국불교 체험을 비롯해 청년포교에서도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는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화엄사 조실 금성당 명선 대종사 원적

2월 2일 여수 흥국사서…2월 6일 영결식 봉행

조계종 명예원로의원이자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조실인 금성당 명선 대종사〈사진〉가 2월 2일 새벽 4시 59분 여수 흥국사에서 법납 71년, 세수 88세로 원적에 들었다.

명선 대종사는 1953년 전남 나주 다보사에서 도천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4년 전남 나주 다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계했다. 1955년 목포 정혜원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를 1959년 양산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59년 해인사 불교전문대학 대교과를 졸업하고 1975년 동국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1959년부터 해인사, 상원사, 관음사, 범어사 등에서 15안거를 성만했다. 제3~8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19교구본사 지리산 대화엄사 주지, 고양 상운사 주지, 곡성 태안사 주지, 여수 흥국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2007년 조계종 원로의원에 추대돼 원로회의 부의장과, 화엄문도회 문장 등을 지냈다.



장례는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화엄사 화엄원에서 진행되며, 영결식은 2월 6일 오전 10시 화엄사에서 봉행된다.〈영결식 기사 차주 상보〉

이와함께 명선 대종사는 원적에 들기 전 열반게를 통해 "무량겁 쌓은 업장 다 소멸하고, 부지런히 불도 닦아 중생 제도하라. 만일 금생에 이루지 못하거든 내생에라도 꼭 이루어, 널리 나와 남도 이롭게 하고 모든 중생도 이익케 하라"고 설했다. 신성민 기자·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미얀마 쿠데타 2년 민주화위한 108배

조계종 사노위, 1월 31일 기도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는 1월 31일 서울 용산구 주한미얀마대사관 앞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2년, 미얀마 군부 퇴진과 미얀마 민주주의 기원 기도회'를 봉행했다. 이날 기도회는 지난 2년 동안 민주화 운동 중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법고 의식을 시작으로 미얀마 민주주의를 기원하는 스님들과 참가자들의 108배로 진행됐다.

기도회에서 사노위 부위원장 혜문 스님은 "미얀마 군부는 무고한 국민들에게 반불교적, 반인간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반성과 참회는 하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임은호 기자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 종무원 열린불교대 3월 입학 안내



영남범음범패 과정

매주 화요일 오후 2시~6시

* 교육과정
(1) 초급과정 ● 다향석, 조석예불
(2) 중급과정 ● 사시불공, 각단불공 ● 바라춤, 요잡, 나비춤 ● 49재, 천도의식
(3) 고급과정 - 초·중급 이수자에 한 함 ● 신중작법, 사다라니춤, 시달림 ● 예수재, 천도의식 해석.

* 모집대상 : 소속 종단, 승속, 승납 등에 상관없이 범음범패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

* 강 주 : 법안 스님 010-6394-9687

전통범음범패 과정

매주 목요일 오후 2시~6시

* 교육과정
(1) 초·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중급 이수자에 한 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104위, 39위), 욕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가지게

* 강 주 : 성우 스님 010-4277-1357

*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 종무원사 1층 설법전에서 강의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인동가산로 1045)
* 각 강좌 당 모집인원 선착순 ○○명 상시모집
* 종무원 2층 사무실에 비치된 열린불교대 입학 원서 작성 제출

* 입학금 10만원, 수강료 매월 10만원
* 기존 각 강좌 등록 이력이 계신 분의 경우 입학금 면제
* 전화를 통한 입학도 가능. 문의처 (054) 975-4339